

봉 감독 어릴적 이웃 “뚝뚝하고 그림 잘 그려”

봉 감독 가족이 살던 때 형태 그대로 유지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감동 줘 자랑스럽다”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뚝뚝하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렸지. 로봇테권브이(V) 같은 그림을 선물로 받기도 했는데, 그게 여태 남아있으면...”

11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사는 조종래씨(83)는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쓴 거장 봉준호 감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조씨는 “1971년 무렵부터 5~6년 가장 맞은편 집에 살던 ‘봉 교수네’ 아들이 준호였다”며 “우리 아들이 준호보다 한살 적었는데 골목에서 ‘준호형’ 하며 잘 놀았다. 봉 감독이 초등학교 시절 체격이 좋고 씩씩했다”고 회상했다.

조씨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자

신의 집이 있는 대명9동 일대는 원래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제일모직 건부를 위한 사택 부지를 조성했던 곳이다.

집이 대략 스무채 남짓 있었는데 1971년쯤 이사왔을 때 맞은편에 대학교수가 살았고, 그집이 바로 봉 감독의 집이었다.

‘대학교수’는 1965~1978년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응용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봉 감독의 아버지인 고 봉상균씨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봉 감독이 살던 집은 서너번 주인이 바뀌었다가 최근 주인이 세를 놓고 이사를 가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다.

조씨는 “봉 감독이 살았던 집이

초창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 퇴직한 조씨는 평소 인터넷과 TV를 통해 봉준호 감독의 활약상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전날 아카데미 시상식을 생중계로 보고 저녁에는 뉴스로 봤다”며 “이전에도 봉 감독이 상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날 많은 취재진이 봉 감독의 옛날 집을 찾았고, 조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조씨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감동을 준 봉준호 감독이 너무 고맙다. 옛날이지만 이웃에 함께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의 이름을 딴 ‘길 이름’이나 기념관 설립 등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한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이 어렸을 때 아버지 고봉상균 씨와 함께 살았던 집이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보은군, 구내식당 운영재개 늦추기로

충북 보은군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8월 말부터 운영 중단한 군청 구내식당 운영재개를 늦추기로 했다.

군청 직원들의 불편 해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이 더해진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인식에서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군청 구내식당을 수박 운영하던 업체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말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군이 군청 직원의 급여에서 1인당 57기(월 2만5000원)를 의무적으로 공제해 구내식당 운영업체에 지급했지만, 식수 인원이 적어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보은군청 직원들은 매일 점심을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해 구내식당 운영재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군은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방안, 새로운 운영 업체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구내식당 시설 현대화가 먼저라는 지적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노력을 잠시 멈추고 구내식당 운영 재개를 하반기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가뜩이나 겨울철 관광객 감소, 스포츠산업 비수기 등으로 지역 상권이 침체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까지 확산해 지역 음식점 등이 고사 위기에 처한 까닭이다.

군청 직원들의 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로 아우성인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군청 직원들도 장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생각에 구내식당 운영 재개를 늦추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보은군 관계자는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한 후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아 운영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운영 재개를 하반기로 늦출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인근 옥천군도 격주 금요일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직원 ‘외식하는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신종 코로나 탓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인천시, ‘데이터’ 기반 경제 육성

인천시가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시작한 ‘데이터 행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선정된 ‘스타트업·벤처 플러스, 폼’ (이하 스타트업 플러스)을 데이터 경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에 창업을 위한 인프라와 핵심기술 집적화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스타트업 플러스 조성에는 국비 121억원과 시비 121억원 등 총 242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여기에 20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인천경제청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공항·항만·공원 등에 기업들이 만들어 낸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공간도 만들 계획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럼 향후 신종 코로나 특이출원 증가 예상

지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진단에 새로운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20을 적용, 기존 24시간에 비해 짧은 6시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20은 신종 코로나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를 검출해 감염 여부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는 감기의 주요 병원체로 번이가 종종 발생, 중증급성호흡중후군(SARS, 사스) 및 중증호흡기중후군(MERS, 메르스)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0

년간(2000~2019년)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기술은 모두 64건(내국인 56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첫 보고된 사스 유발 코로나바이러스(SARS-CoV) 관련 진단기술은 모두 19건(내국인 16건)이 출원됐다.

2012년 첫 보고 후 2015년 국내에 전파된 메르스 유발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관련 진단기술의 출원은 모두 33건으로, 국내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 내국인 출원(30건)으로 국내에서 발병이 많았던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이적 진단에 관한 출원은 없으나,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향후 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술은 항원-항체 반응 이용 진단기술(30분 내외 소요)과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이용 진단기술(6시간 내외 소요)로 구분되고, 각각 32건(내국인 25건) 및 33건(내국인 31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진단기술과 PCR 진단기술은 각각 7건(내국인 5건)과 12건(내국인 11건)이 출원됐고, 메르스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진단기술과 PCR 진단기술은 각각 23건(내국인 20건)과 10건(모두 내국인)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 진단기술은 최근 20년간 총 200건(내국인 138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진단기술과 PCR 진단기술은 각각 132건(내국인 76건)과 88건(내국인 76건)이 출원, 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한 항원-항체 반응 진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 등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신속 진단과 치료 요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 심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역시 인플루엔자처럼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신속 진단기술과 함께 다수종의 바이러스를 동시 진단하는 멀티플렉스(multiplex) 실시간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진단기술 역시 연구 개발 및 출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감염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스1

울산 쇠부리축제·고래축제, 문체부 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정



울산시는 ‘울산 쇠부리축제’와 ‘울산 고래축제’가 2020~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최종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예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 평가 결과 울산 쇠부리축제, 울산 고래축제를 포함한 전국의 33개 축제가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 쇠부리축제는 축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철의 원류지인 달천철장으로 장소를 옮기고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남구 고래축제는 지역 문

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축제 전담 조직 하에 고래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보완됐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 축제가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2년간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가 현장평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적이 없는 울산 쇠부리축제의 경우 빅데이터를 통한 축제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울산 고래축제의 경우에도 정체성 확립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향후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제 축제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생력, 지속 가능성 등 발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예비 문화관광축제가 잘 육성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봄 같은 겨울’, 제주도롱농 산란 확인

‘봄 같은 겨울’ 날씨로 제주도롱농도 겨울잠에서 일찍 깬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병권)은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제주도롱농이 예년보다 빨리 겨울잠에서 깨 산란한 모습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제주지역의 산림생태계 계절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10일 제주 서귀포시 한남리 지역 습지에서 산란 후 알을 지키고있는 제주도롱농을 발견했다.

제주도롱농의 산란시기를 보면 제주도롱농의 산란 시기는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일회용컵 재등장 대구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과태료 처분 대상인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사진은 카페에서 직원이 종이컵을 정리하는 모습.

김중회 의원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 8월부터 시행

농어업인 정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김중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 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김중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

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월9일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뉴스1

강원 부대에 신선한 식재료 제공...軍 급식유통센터 개장

강원지역 최전방 부대 장병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제3군수지원여단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강원권 군 급식유통센터를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2498㎡ 규모로

대형 냉장과 냉동 창고, 소규모 분류와 포장실, 부식 검수와 검사실을 비롯해 차량 18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첨단 시설과 함께 진동 지게차와 습식 바닥청소차 등 현

대화된 장비도 구비돼 있다.

이번 센터 개장으로 도내 장병들에게 필요한 모든 식재료들이 저온유지 상태로 수납과 검사, 분류, 포장, 적재와 배송이 한 장소에서 이뤄지게 됐다.

뉴스1

뉴스1